"수도권 포교로 불교중흥" 다짐

직할교구신도회, 발전위한 간담회 개최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현수)가 수도권 포교와 불교중흥을 위한 원력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스님, 총무원장) 주최로 열린 '직할교구 신도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직할교구신도회는 올해 사업목표로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보조를 맞춰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력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사무처 운영 안정화 등을 정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운영위원·대의원 사찰 늘리기 △인재육성 △1사찰 1가정 돌봄이 △연간 캠페인 사업(민족문화사업 동참, 5대 결사 봉행 사업) △종단 주요행사 동참(봉축 행사 등) 등의 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8월15일에는 창립1주년기념법회를 겸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직할교구신도회 활동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할교구 신도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직할교구 사무처장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으로부터 활동기금 500만원을 전달받은 신도회는 간담회가 끝난 후 서울남부교도소(옛 서울영등포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기금으로 전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지난 2010년 8월15일 창립법회를 봉행한 후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3월12일 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월 1차례 임원단 회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할교구 사무처는 신도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무처와 신도회는 직할교구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직할교구 소속 사찰 신도 회장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직할교구 신도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이현수 직할교구신도회장은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종단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할교구 사무처장 영담스님도 "직할교구신도회가 발전해야 수도권 포교는 물론 한국불교 중흥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직할교구신도회의 위치와 위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직할교구 사무처장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 총무국장 현담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 재안스님과 이현수 직할교구 신도회장, 한숙희·권태근·심대근·장용숙·한말선 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신도회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성수 박인탁 기자

탁본 체험을 하고 있는 토랑 추기경과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재호 기자

토랑 추기경, 총무원 예방

24일,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환담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토랑 추기경이 '가톨릭 추기경'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도모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토랑 추기경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추기경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토랑 추기경은 오는 10월 교황청이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개최하는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에 참석해달라며 교황 명의의 공식초청장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했다.

토랑 추기경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에도 교황청을 방문해주셔서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를 통해 종교간 화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해주기 바란다"며 공식초청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조계종이 오는 2013년 개최하는 세계종교지도자포럼에도 교황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토랑 추기경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환담한 뒤 불교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연꽃문양을 탁본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토랑 추기경은 "평생 처음으로 해본 색다른 경험이었다"면서 "색다른 체험을 하게 해줘 감사하다"고 탁본 체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 7대종단 대표와 토랑 추기경은 이날 교황대사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종교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박인탁 기자

동국대에 문화기금 1억 전달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은 동국대 김희옥 총장에게 대한불교문화기금 1억원을 지난 23일 전달했다. 기금은 2007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지급하기로 맺은 협약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이날 지급된 것이다.〈사진〉

대한불교진흥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금 전달식에서 민병천 이사장은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적은 액수이나마 지원한다"며 "좋은 연구와 불교문화 창달에 적절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매년 수여되는 '대원불교문화상' 수상금으로 쓰여지며, 불교 학술과 문화, 콘텐츠 창작 등의 분야에 대해 상금이 지급돼왔다.

한편 문화상 상금 3500만원은 그간 진흥원이 지원한 기금의 원금을 보존한 상태에서 이자로 마련돼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이자수익이 1500만원에 불과해 상금 부족분을 진흥원이 추가로 보전해줬었다.

김종찬 기자 kimjc00@ibulgyo.com

"총림 운영원칙 공론화하자"

통도사 비상대책위 구성…주지스님 단식

산중총회 '무효' 논란

영축총림 통도사는 지난 24일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방장 스님 불신임과 총림 운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인 '산중회의' 설치 등을 결의했다. 산중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주지 정우스님은 폐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우스님은 "주지추천권만 행사하려는 방장 스님의 행보는 대중공의를 저버린 것이기에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총림운영 원칙을 공론에 부쳐 새로운 걸음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우스님에 따르면 산중총회는 방장 스님 불신임과 함께 차기 방장으로 조계종 원로의원 월파스님(울산 문수사 주지)을 추천해 중앙종회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 4월26일 9인 소위원회가 추천한 영배스님을 차기 주지로 결정하고,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주지 품신을 요청할 것을 동의했다. 동시에 원산스님을 차기 주지로 지명한 방장 스님의 주지 추천서에 대한 반려도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중총회에서는 비상대책기구인 '산중회의'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의장엔 명신스님(서울 보현사 주지), 부의장엔 재경스님(밀양 표충사 주지)과 범해스님(중앙종회의원)을 추대했다. 산중회의는 5월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주지 스님에 이어 통도사의 종무행정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안거 해제 이후인 오는 8월18일 다시 산중총회를 열어 대중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특히 주지 정우스님은 통도사 자정을 위한 결사를 선언하고 종무소 소임자를 비롯한 10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육화당에서 단식정진에 들어갔다.

한편 산중총회가 성원을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산중총회 주최측은 재적 416명의 스님 가운데 참석 146명 위임 82명 등 과반수가 넘는 228명의 성원을 근거로 개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위임은 참석자로 볼 수 없다며 산중총회는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우스님은 "산중총회 성원은 과반수여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다"며 "산중총회는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방장 스님을 지지하는 지준스님(전 중앙종회 수석부의장)과 반산스님(전 통도사승가대학 강사)은 산중총회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석자가 과반수를 채울 때에만 산중총회를 개회하는 것이 그간 통도사의 관례였다"며 재반박했다. 통도사=장영섭 기자

월암문도회, 자비나눔 1억 보시

수덕사 호압사 화계사 옥천암, 승가교육불사 '후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월암 정대스님 제자들의 모임인 월암문도회가 자비나눔기금으로 1억원을 보시했다. 월암문도회 성무스님, 성룡스님, 성곡스님, 성효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자비나눔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사진 왼쪽〉 문도회를 대표해 기금을 전달한 스님들은 "총무원장 스님 취임 이후 불교계 내에서 나눔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어 보기 좋다"며 "큰스님 유지를 이어 보람 있는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나눔 결사에 동참하는 뜻에서 크게 마음을 내준 스님들에게 고맙다"며 "기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겠다"고 인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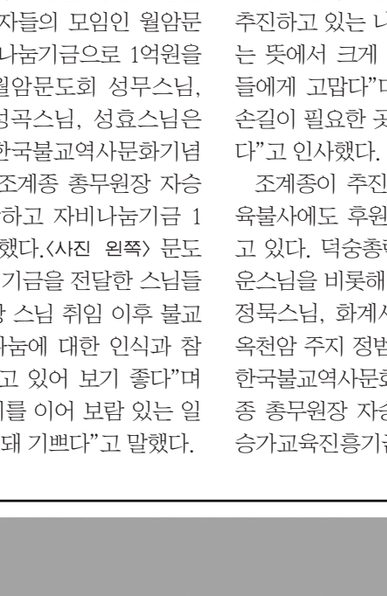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승가교육불사에도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지운스님을 비롯해 서울 호압사 주지 정묵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 옥천암 주지 정범스님은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승가교육진흥기금을 전달했다.〈사진 오른쪽〉 이날 수덕사와 화계사가 각각 1000만원을, 호압사와 옥천암에서 각각 500만원을 후원, 총 3000만원의 승가교육진흥기금이 추가로 적립됐다. 스님들은 "한국불교 미래를 책임질 승가교육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게 됐다"며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가교육 개편안들이 성공적으로 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해준 스님과 신도들 모두 고맙다"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종단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수덕사는 이날 논산 군법당 불사 후원기금 1000만원을 함께 전달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My Pride Dongguk!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편)입생모집



2011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불 교	차문화컨텐츠	불교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전 공	불교학, 선학	다도 · 제다	사 회 복 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1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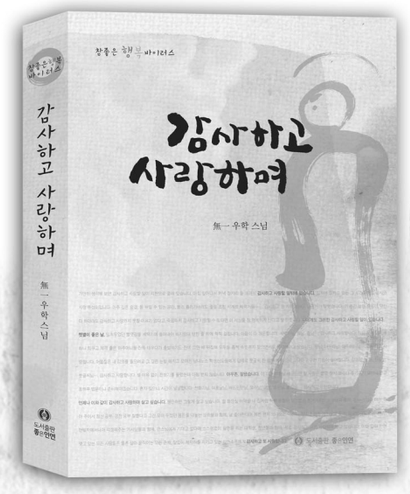
구 분	일 자	구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11. 5. 16(월) ~6. 8(수)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 형 일 및 장 소	2011. 6. 18(토) 10: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특 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4학기수료) 수료자는 총장명의의 상제례사 인증 응시자격 부여 및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본 대학교 출신자 진학 시 입학금 면제.

■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6,3097 • FAX 02-2260-8627
• http://gsbs.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스님의 신간



감사하고 사랑하며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삶의 빛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학스님은 감사와 사랑을 참좋은 행복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이책에서는 행복바이러스인 감사와 사랑이 우리가 늘 꿈꾸는 행복, 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스님의 일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상이라는 것이 보통의 우리에게 그리 멀지도 낯설지도 않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행복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음을 이 책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참좋은 행복 바이러스 | 컬러 304쪽 | 정가 13,000원 | 구입문의_ 도서출판 좋은인연 또는 불교대학서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행자모집 합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불교대학서점 053-474-8229

홈페이지 한국불교대학 www.TVuddha.kr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cafe.daum.net/indelamang